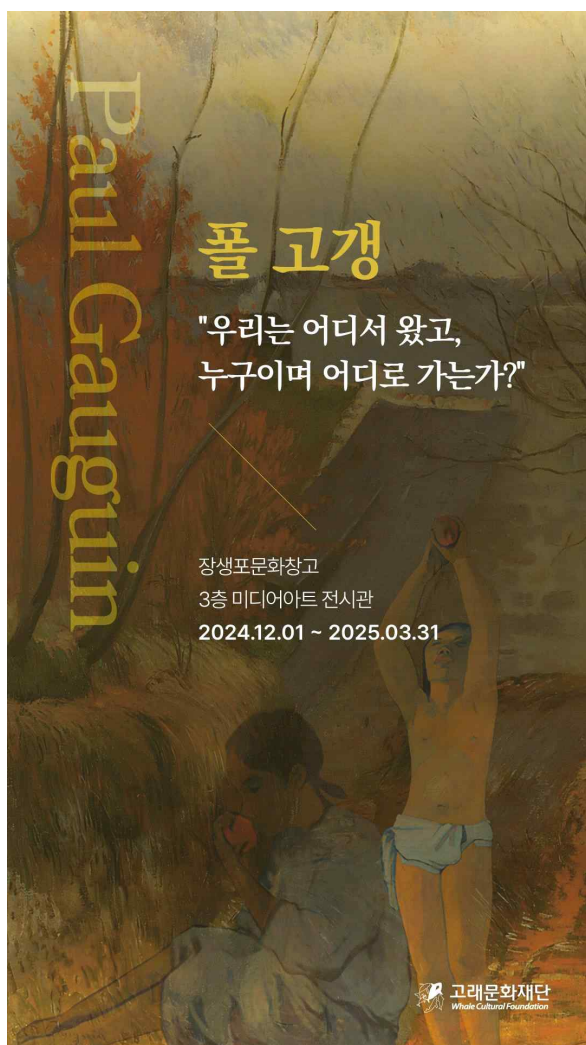


보도일시 | 2024년 11월 22일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생포문화창고 미디어아트 인상주의 화가 시리즈 세 번째 이야기

- 폴 고갱 "우리는 어디서 왔고,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가?" -



인상주의 화가 시리즈 세 번째 ‘폴 고갱(1848~1903)’을 주제로 오는 12월 1일(일)부터 2025년 3월 30일(일)까지 4개월간 (재)고래문화재단(이사장 서동욱 남구청장)이 운영하는 장생포문화창고 3층 미디어아트전시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폴 고갱의 대표 작품을 미디어아트로 재해석하여 원작의 매력을 새롭게 표현한다. 고갱의 독특한 색채와 강렬한 생명력, 자연과 생물이

어우러진 원시 자연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이번 전시는 고갱의 작품들을 주제별로 나누어 4개의 단락으로 표현된다. 당시 서구사회의 이국적인 문화, 색다른 시각으로 본 자연과 생물의 순수함과 생명력, 종교적 신념 등을 그만의 독특한 색채로 만나볼 수 있다.

첫 번째 단락 ‘자유에 대한 열망’은 초기 작품을 보여주며 금융업에 종사하다 뒤늦게 화가에 길에 들어선 그의 예술에 대한 열망을 나타낸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 ‘색채의 마술사’는 고갱만의 대담한 색조와 독특한 색채를 담은 대표작들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으며 세 번째 단락 ‘낙원, 타히티’는 1891년 타히티로 떠나 원주민의 삶과 자연을 화폭에 담으며 문명화되지 않은 세계에 동경과 경외심이 드러난다. 마지막 단락 ‘내면 탐구’는 그의 종교적 신념과 상징을 깊이 드러낸 작품을 보여주며 인간의 존재에 본질적 질문에 답을 하려는 메시지를 전한다.

폴 고갱(1848~1903)은 강렬한 색채와 독창적인 구도로 인상주의를 넘어 표현주의를 개척한 예술가이다. 초기에는 금융업에 종사했으나, 예술에 대한 열정을 따라 화가의 길로 들어섰다. 1881년 프랑스를 떠나 타히티 등 남태평양의 섬으로 이주하여 그곳의 자연과 생물의 생명력을 화폭에 담았다.

장생포문화창고는 과거 냉동창고로 쓰였던 옛 건물을 복합문화시설로 새롭게 개조해 전시와 공연, 체험 등 각종 문화 행사를 선보이는 ‘울산의 대표적 명소’ 중 한 곳이다.

자세한 내용은 (재)고래문화재단 및 장생포문화창고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문의 052·226·0013 (매주 월요일 휴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래문화재단 전시기획팀(☎ 052-226-0013)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보도자료를 의뢰하오니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1. 20.